

전남, 모든 사업 인구 늘리기에 집중

‘인구영향평가제’ 시범 도입 출산을 제고·전입인구 확대 등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적극 대응

전남도가 올 하반기부터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전남도의 각종 정책, 사업 등에 인구 구조와 주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사업 목적과 내용을 인구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인구영향평가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5월 까지 전문가 의견수렴과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연구용역’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쳤다. 대상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중 개별사업 특성을 감안해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출산을 제고와 전입인구 확대, 생활인구 유입, 청년 비율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범 적용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사업 담당자가 일자리와 출산, 양육, 거주환경 등 인구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체크리스트해 자체 진단한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에 의한 개선사항이나 제안사항 등을 포함한 2차 심층평가(정성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결과를 사업 담당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사업 담당 공무원의 인구 중요성 인식 강화 ▲인구 정책 강화 및 인구 사업 확대 유도 ▲인구 성과 관점에서 점진적 사업 개선 등 효과가 기대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고 인구 총력 대응을 위해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함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47억 지원 최대 3년간 농가 100만원·농업법인 200만원

전남도가 고물가, 고금리, 생산비 급등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4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자차액 지원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종합자금·농어촌구조개선자금·산림사업종합자금 등 정부 농업정책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를 최대 1%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지원한다.
농업인은 대출금 1억원 한도에서 연간 100만원, 농업법인은 대출금 2억원 한도에서 연간 2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농업정책자금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대출이율, 기산일 등을 검증한 후 농업정책자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2월에 이자차액을 금

용기관으로 보전해준다.
이에 따라 해당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찾은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 수확량 감소로 농사짓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민선 8기 후반기 시작과 함께 농업인 민생안정 대책으로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 ▲농업정책자금 상환 기간 한시적 유예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농축산물 할인 및 소비 촉진 등을 추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실무회의 전남도는 15일 오후 도청 서재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 제공>

함평천지 맛거리·진도서천 간재미거리...남도음식거리 선정

각 10억원 투입...상징물 설치 등

함평천지 맛거리, 진도서천 간재미거리 등 2곳이 2024년남도음식거리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이들 2곳의 거리에 각각 10억원을 들여 음식거리 상징물 및 편의시설 설치, 간판 개선, 보행로 정비, 주차장 확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함평천지 맛거리는 함평읍 중앙길 일원으로 15개 음식점이 영업 중이다. 인근 수산물 거리와 연계돼 있고, 함평나비축제, 함평국화축제 등의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어 접근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선한 해산물 요리와 함평의 대표적인 한우 요리 등이 맛거리의 주요 메뉴로 제공된다.
진도서천 간재미거리는 진도읍 남동1길에 자리하고 있으며, 진도의 특산물인 신선한 간재미 회

와 매운탕, 쪄 요리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진도서천 간재미거리의 맛있는 간재미 요리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진도의 자연경관과 함께 다양한 관광지를 연계해 방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이상식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남도음식거리 브랜드화를 위해 1시간 1음식거리를 조성하여 지역특산물과 문화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특색있게 남도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리겠다”며 “미조성 3개 군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은 음식 관광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됐으며, 15개 시·군 17개소가 조성돼 있고 2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인공지능 바우처’로 기업 성장 이끈다

29일까지 AI기업 15곳 모집...이용권 최대 1500만원 지원 공공장소에 설치 시민체감 확대...매출·일자리·기업 성장 기대

광주시가 지역기업의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을 시민이 직접 체험하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 성장을 견인한다.
광주시는 “오는 29일까지 지역 인공지능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시민의 인공지능기술 체감을 위해 ‘시민·지역기업 중심 인공지능(AI)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15개사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이 일상에서 지역 인공지능기업의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으로 이용하고, 기업은 이들을 고객으로 확보해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는 계

목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많은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설치형 제품·서비스를 확대한다.
광주에 본사, 지사, 연구소를 둔 인공지능 지역 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은 인공지능(AI) 이용권(바우처)을 지원받아 시민에게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용권(바우처) 지원금액은 총 2억원이며 최대 15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각 기업별 이용권 지

원금액은 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되며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 개선을 위한 상담(컨설팅), 인공지능 투자유치설명회(IR) 참가, 국제 인공지능 학술대회 참가 등 혜택도 주어진다.
인공지능(AI) 바우처 지원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지역 인공지능기업은 오는 29일까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누리집(<http://www.aica-gj.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4월 1차 참여기업 모집에서는 총 27개 지역 인공지능 기업이 신청,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18개 기업의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가 선정돼 시민들에게 이용권을 제공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난공사 구간 건설 업체 찾기 나서

조달청, 7공구·10공구 입찰 공고

광주시가 난공사 구간으로 수차례 입찰이 무산된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7공구와 10공구 건설 업체 찾기에 나선다.
15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9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7공구와 10공구 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업체 무관심 속에 유찰이 이어져 이번이 5번째 입찰이다. 7공구는 전남대학교 주변, 10공구는 본촌 산단을 통과하는 구간으로 도로가 좁고 지장물이나 주변 노후건물이 많아 민원 소지도 큰 지역으로 꼽힌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수차례 유찰에 따라 다른 공구 공사 업체 등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입찰 참여 등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기업들의 적자 예상에 공사비 증액 등 요구사항도 정취해 적정비용이 산출되면 공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조달청은 오는 29일까지 적격성 심사신청을 받고 다음달 23일 개찰할 예정이다. 공사 추정 금액은 7공구 1726억 9000여만원, 10공구 1295억 3000여만원이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는 시청에서 월드컵 경기장 등을 지나 광주역까지 17.06km 구간, 2단계는 광주역에서 전남대와 일곡·점단·수원·운남지구를 거쳐 시청까지 20.046km 구간이다. 1단계는 2026년, 2단계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업체 선정이 미뤄지면서 2단계 완공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청정 땅끝해남에서 정성으로 키운 명품 농수특산물로 건강과 행복을 만드세요!

문의 080-859-1100 | www.hnmiso.com